

사우회 창립 25주년 회원단합대회 열려



5월18일(월) 양주 문화동산, 241명 참석

신록의 계절 5월은 ‘가정의 달’이자 18일은 사우회 출범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 ‘MBC사우회 창립 25주년 기념 2015년 회원 단합대회’가 양주 문화동산에서 열렸다. 개회식에서 2월 정기총회 이후 80일 만에 부른 MBC 社歌는 문화동산 구석구석 울려 퍼졌으며 240여 회원들은 현역으로 돌아간 듯 상기된 표정으로 하나가 되었다. 김수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MBC 사우회가 스물다섯 청년이 되는 생일”이라고 자축한 뒤 “성대한 잔치를 지원해준 MBC 안광한 사장과 임직원에게 감사하며 생일잔치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MBC 김현중 편성제작본부장은 “사우회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선배들이 청춘을 바쳐 일궈낸 MBC의 빛나는 전통과 위상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김성근 방송인프라본부장은 “상암 신사옥은 일본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첨단 시설을 갖춘 방송사가 됐다”면서 상암동으로 이전 후 시청율이 계속 올라 “여의도 건물을 팔지 않더라도 자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규석(편제) 고문의 건배 제의를 시작으로 회원들은 이동갈비를 안주삼아 소주와 맥주를 들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이어 진행된 행운권 추첨에서는 단합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했다는 이종숙(관리) 회원이 1등에 당첨되어 여성용 고급 스카프를 상품으로 받았으며 김세중(관리), 조강래(업무) 회원은 2등에 당첨돼 6년근 홍삼순액을, 이상진(보도), 김성한(관리), 고흥복(기술) 회원은 3등에 당첨돼 진홍삼 세



트를 선물로 받는 기쁨을 누렸다. 이날 단합대회에는 노서을 고문을 비롯해, 241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MBC에서 김현중, 김성근 본부장과 송병희 경영지원국장, 이재명 총무부장, 최부영 사우회 담당부장 등 7명이 참석했다. 흥국화재보험에서는 100만원을 협찬해 사우회 생일잔치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다.

총회, 단합대회 회원 참여율 평균 17%

김수량 회장은 단합대회 인사말에서 “회원들이 많이 참여해야 행사가 빛나고 주최측에서 더 큰 일을 계획할 수가 있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올해 열린 두 차례 행사(정기총회, 단합대회)에서의 회원들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평균 17%대로 나타났다. 2월에 열린 정기총회 때는 총 회원 1,232명(지방-미주제외) 중 187명이 참석해 참여율 15.2%였으며, 단합대회 때는 1,239명 가운데 241명이 참석해 19.4%의 참여율을 보였다. 부문별 참여율이 가장 높은 곳은 기술부으로, 정기총회 22.4%(회원 183명중 41명 참석) 단합대회 24.7%(회원 186명중 46명 참석)였다.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아나운서 부문으로 정기총회 9.4%(회원 53명중 5명 참석) 단합대회 7.5%(회원 53명중 4명 참석)이고 관리부은 정기총회 58명(30.3%), 단합대회 90명(37.3%)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구 분	편성제작	보 도	아나운서	기 술	업 무	관 리
정기총회 (2월26일)	33명/332명 (9.9%)	30명/192명 (15.6%)	5명/53명 (9.4%)	41명/183명 (22.4%)	20명/94명 (21.2%)	58명/363명 (15.9%)
단합대회 (5월18일)	51명/335명 (15.2%)	26명/196명 (13.2%)	4명/53명 (7.5%)	46명/186명 (24.7%)	17명/92명 (18.4%)	90명/362명 (24.8%)

봄철 등산대회 85명 참석

봄철 등산대회가 4월29일(수) 북한산 둘레길 2구간(순례길)과 1구간(소나무숲길) 6.1Km 코스에서 실시됐다. 맑은 날씨가 예상되던 기상예보와는 달리 아침부터 조금씩 비가 내렸으나 김수량 회장과 서규석(편제) 고문을 비롯하여 예상보다 많은 85명이 참석했다. 또한 2013년 가을철 등산대회 때 1구간을 시작하는 솔밭근린공원에서 산행을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섰던 김해원(편제) 회원도 참석했다. 서규석 고문은 ‘이 산행 코스를 여러 번 걸어본 경험이 있다’면서 앞장서서 걸어가 나이를 무색케 하는 건강을 과시했고 김해원 회원은 중간 중간 “얼마를 더 가야 하느냐?”고 자주 물어 진행 요원들을 긴장시켰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 박수를 받았다. 산행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오락가락해 대부분의 회원들이 우산을 쓰고 걷는 바람에 주변 경치를 마음껏 감상할 수 없는 아쉬움을 남겼다. 사무처에서는 참가한 모든 회원에게 여행용 ‘크로스 보조 가방’을 선물로 드렸다.

※ 알림 ※

5월은 행사가 많은 관계로 회보 발행이 다소 늦어졌음을 양해 바랍니다.

MBC PLAYBE
Global No. 1 Edutainment Company

“놀면서 배우는 에듀테인먼트,
MBC플레이비가 앞서갑니다”

Kidzania
Seoul

사우회 회장단-MBC 임원진 오찬모임



사우회 회장단과 MBC 임원진의 오찬모임이 5월19일(화) 행주산성 일미정에서 치러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난 2월 신입 본부장으로 선임된 김현종 편성 제작본부장과, 김장겸 보도본부장, 김엽 예능본부장 등이 소개됐다. 김수량 회장은 전날 실시한 사우회 단합대회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지원해준 MBC에 감사 표를 표했고, 안광한 사장은 MBC의 경영사정이 호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사우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는 사우회에서 김수량 회장, 신대근 부회장, 임주완 부회장, 김용빈 부회장, 이용구 부회장, 백하현 부회장과 임국희 감사, 박종규 총무이사, 최준식 사무처장이 참석했고, MBC에서는 안광한 사장과 권재홍 부사장, 오정우 미디어사업본부장, 송병희 경영지원 국장, 이재명 총무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봄철 골프대회 이은용(기술) 회원 우승



5월12일(화) 진천 에머슨CC에서 열린 봄철 골프대회에서 기술부문의 이은용 회원(사진)이 우승했다. 이 회원은 비거리와 퍼팅에서 발군의 기량을 과시하여 아웃코스에서 이븐파를 기록하는 등 함께 74타로 우승을 차지해 10Kg 짜리 청결미를 상품으로 받았다. 준우승은 80타를 기록한 윤상도(기술) 회원이 차지했다. 근접상은 훌겁에 20Cm까지 붙인 이용구(업무) 회원이 가져갔다. 행운상은 이날 결혼기념일을 맞은 고장석(편제), 박민정(ANN) 부부에게 주어졌고 감투상은 20년 만에 그린을 밟은 정영환(보도) 회원에게 돌아갔다. 특별상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전을 기록한 백하현(관리) 부회장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11개팀(44명)이 참가했으며 MBC플러스미디어(사장 한윤희)에서 점심과 참가자 선물을, 흥국화재보험에서 골프공 12박스를 협찬했다.

낙시대회, 5/22(금) 김포 누산수로에서

김병문(관리)회원 월척을 낚아

사우회 낙시대회에서 4년 만에 월척이 나왔다. 5월22일(금) 김포 누산수로에서 가진 봄철 낙시대회에서 낚시 경력 50년의 김병문 회원(사진)이 32Cm의 붕어를 낚아 1등을 차지했다. 송재선(업무) 회원이 28.5Cm의 붕어로 2등, 3등은 19.5Cm의 붕어를 잡은 박찬근(관리) 회원이 차지했다. 행운상은 15.2Cm짜리 피라미를 잡은 이정오(기술)회원에게 돌아갔다.



3회사우회 바둑대회 KBS 우승

‘제2회 MBC·KBS·SBS사우회 친선바둑대회’에서 KBS사우회 유병철 회원이 우승했다. MBC 주관으로 4월23일 MBC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전(아마 5단 이상)결승전에서 유병철 회원은 같은 KBS의 최병화 회원을 이겨 우승했다. 1회 대회 우승자인 SBS 고장석 회원은 준결승에서 최병화 회원에게 졌다. MBC사우회는 1회 대회와 마찬가지로 한박무 회원이 준결승에 진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4급 이상의 대표전에서는 SBS 김수웅 회장이 우승했다. 이번 대회 최고위전은 KBS, 대표전은 SBS사우회 회원끼리 결승에서 맞붙었으며, 준결승 8명 가운데 KBS가 4명, SBS가 3명이 진출하는 강세를 보였다. 제3회 대회는 SBS사우회 주관으로 10월에 열린다.



“사우회 홈페이지를 새로이 단장했습니다~.”

기존 사이트와 주소 (<http://mbcsau.com>)는 같습니다.

개인별 연회비현황을 회원이 직접 로그인해서 볼 수 있게 했으며,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도 가능합니다. 기존 아이디를 계속 사용 하시면 되고, 사우회 회원이시면서 아이디 개시를 안하신분들은 회원 등록번호로 부여가 됐으므로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블로그형태라 아이디변경은 어려우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홈페이지 최상단 우측에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사이트맵을 보시면 메뉴를 한번에 다 보실 수 있으며,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사우회 다음카페 (<http://cafe.daum.net/mbcsau>)및 MBC홈페이지를 링크시켰습니다.

사우회 홈페이지 사이트 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지사항	사우회현황	경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절차 공지사항 행사안내·결과 사우회보 결산재무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장인사 연혁 정관 임원현황 조직도 경조규정 오시는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경조사항

회원정보

- 회원조회
- 생일자조회
- 신규회원
- 변경사항

동호회 활동

- 등산대회
- 낙시대회
- 골프대회
- 바둑대회
- 한문공부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회원게시판

- 가입인사말
- 회원동정
- 앨범
- 사무회에 바랍니다.

MBC 본사

- 경조사항
- 인사발령

연회비현황

- 개인별 납부현황

경·조사

■ 팔순 ■

신형창(보도)7/6 김부영(보도)7/13 김진희(편제)7/21

■ 고희 ■

강유현(대구)6/20 박承基(전주)6/20 국창섭(편제)6/25 강철호(편제)7/1
조은국(관리)7/7 조정구(기술)7/12 임주완(ANN)7/14 장영준(보도)7/23
崔宗洙(편제)7/23 이금희(편제)7/27

■ 회갑 ■

윤재근(보도)6/15 오창식(보도)7/1 임진섭(관리)7/8 서제우(편제)7/13
정복근(편제)7/15 류근종(관리)7/18 이경기(관리)7/29

■ 결혼 ■

은정기(관리)장남3/28 박건칠(기술)차녀3/28 김용남(편제)차남3/28
정재순(기술)차녀4/04 윤건호(편제)장남4/18 이양휘(전주)차남4/18
조일동(관리)장남4/18 최삼규(편제)장남4/18 김준원(기술)장남4/25
송창의(편제) 딸 4/26 김호준(보도)아들5/02 이상근(기술)장녀5/02
임부영(관리)장녀5/02 박노성(관리)장남5/09 한윤희(관리)장남5/09
조준희(대전)장녀5/09 조태현(편제)아들5/09 김종창(편제)장남5/16
김형욱(기술)차녀5/16 이승문(편제) 딸 5/16 양윤모(보도)장남5/17
이운하(업무)차녀5/17 박영태(기술)장녀5/23 강창우(기술)장남5/30
박상규(관리)아들6/13 오양수(관리)3녀 6/13

■ 부음 ■

이웅재(관리)모친상3/12 이해결(업무)장모상3/12 김희철(관리)장모상3/21
경정수(관리)장인상4/06 원춘재(기술)장모상4/07 윤종선(기술)부친상4/11
이용석(편제)부친상4/12 정경석(관리)부친상4/16 신명현(업무)장인상4/21
임주완(ANN)장인상5/02 권병국(편제)장모상5/03 신민철(관리)부친상5/08
심재정(업무)부인상5/13 민창환(편제)모친상5/15 이학귀(관리)부친상5/21

■ 본인사망 ■

유대희(업무) 3월28일(토)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1963년에 업무국에 입사해 CM운행부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1996년에 정년퇴직했다. 젊었던 시절 국궁(國弓)에 심취해 상당한 실력을 쌓기도 했다.

맹광호(업무) 4월5일(일)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 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해 왔다. 1961년 9월에 MBC 라디오 개국 요원으로 업무국에 입사해 7년간 근무하면서 방송 초기 광고유치에 기여했다.

정태일(편제) 4월7일(화) 지병(持病)인 폐질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1세. 1969년 TV 1기생으로 입사해 영화 전문 PD로 재직하다가, 1998년에 홍보국 심의위원으로 명예퇴직 했다.

송기태(전주MBC사우회 회장) 5월4일(월) 혈액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 1967년 전주MBC 기술국에 입사해 6년간 근무했다.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權在弘(보도) 010-2048-4542 02-2631-4542

양천구 목동동로 189, C-3504 (신정동,삼성세르빌A)

金相均(편제) 010-9105-1218 031-979-9588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31-24, 102-206 (토당동,내안애양A)

金張謙(보도) 010-8898-4520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 A-902 (여의도동,공작A)

金晶煜(편제) 010-8955-3867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6 (장항동)

金賢鍾(편제) 010-8887-9740 02-338-6050

마포구 창전로2길 10, 102-802 (신수동,대원칸타빌)

元晩植(편제) 010-9105-1332 031-903-3825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05, 211-104 (마두동,백마마을)

李鎭淑(보도) 010-4937-5657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06-2002

李炯貫(보도) 010-5328-1541 02-2647-9079

김포시 김포한강11로255번길 149, 104-805 (운양동,풍경마을)

張根洙(편제) 010-9199-5853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동문그린시티A 506-1001

全遇聖(기술) 010-8955-3897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120-1 (문화동)

趙榮衍(기술) 010-9199-5736 031-284-5736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7번길 22-4 에코타운 201-101

崔憲坤(기술) 010-9199-5732 02-447-4909

광진구 아차산로70길 17-21, 1-906 (광장동,삼성A)

洪 星(편제) 010-5468-9881 02-747-9881

성북구 대사관로8길 18, 삼청타운하우스 2호 (성북동)

■ 평생회비 ■

김상철(보도)3/02	김경중(보도)3/05	송창의(편제)3/09
김상균(편제)3/12	이형관(보도)3/18	전우성(기술)3/23
조영연(기술)3/25	홍 성(편제)3/26	김용관(편제)4/07
김태경(관리)4/08	최현곤(기술)4/20	이진숙(보도)5/07
권재홍(보도)5/07	원만식(편제)5/13	김정욱(편제)5/19
장근수(편제)5/19	김현종(편제)5/20	김장겸(보도)5/20

■ 연회비 ■

3월 : 강복주(15) 강현식(15) 고창근(14~15) 고춘호(14) 권태규(15) 권태환(15) 금기우(11~15) 김건영(11~15) 김동진(09~15) 김상철(14) 김승수(12~15) 김영면(15) 김영복(12~16,80세완납) 金榮日(11~15) 김은휘(14~23) 김재욱(12~16) 김재현(15) 故김천근(10~14) 김철호(11~20) 김희철(16~20) 박명하(14~24,80세완납) 박명호(04~15) 박영일(11~15) 박 욱(12~15) 박태지(10~15) 손동용(09~15) 송재익(12~15) 신대근(12~15) 신해명(15) 심재주(12~15) 양남종(15) 엄기원(15) 오주환(09~15) 故유대희(14) 유경준(12~16,80세완납) 이견세(18~20) 이성화(09~15) 이시권(15~17) 이양휘(15) 이원형(11~15) 이창식(12~16) 인형식(12~15) 임병찬(11~15,80세완납) 임성전(15) 정국록(15) 정영환(18~23,80세완납) 정진도(15) 정태웅(13~15) 조한준(15) 진성창(15) 최경섭(12~15) 최남석(11~15) 최인준(08~14,80세완납) 최호룡(08~15) 한웅희(15)

4월 : 광영범(15) 김대수(전주,15) 김우룡(13~15) 김조곤(14~15) 김종성(13~22,80세완납) 김태경(12~14) 민경창(15) 박준하((12~15)

TV2me2에
새로움이 플러스 된다

Let's plus!
MBC+ MEDIA
www.mbcplus.com

MBC every2 MBC SPORTS+ MBC drama MBC MUSIC MBC Queen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호수로 598(장항동 MBC 드림센터) / Tel. 031-995-0011

4월 : 박해선(15) 배성룡(15,80세완납) 엄웅열(15,80세완납)
오정수(12~16,80세완납) 유민환(15) 윤상도(11~21,80세완납) 윤상준(15)
이명구(15,80세완납) 이연경(15) 정연호(12~15) 정영웅(15) 故정태일(14)
조준희(15) 차종식(15) 하순봉(12~15) 황종휘(15)

연회비(평생회비)는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사우회로
보내 주십시오.

전화/주소 변경

편제 : 김조곤 010-3274-1526
오명균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59, 112-1201 (성사동,대림e편한세상)
유민환 동작구 만양로 19, 707-406 (노량진동,신동아리버파크A)
은희원 성북구 길음로9길 50, 914-2402 (길음동,길음뉴타운)
이명기 용산구 장문로 141, 106-903 (한남동,한남힐스테이트)
차재영 경산시 경안로56길 14, 307-2105 (중방동,중방e편한세상)
황진환 010-8880-3566
보도 : 김성수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두산위브더제니스 107-2003
김휴선 010-3266-7868
이 증 010-3724-3117
황영옥 과천시 관문로 143, 1108-1003 (래미안에코팰리스A)
ANN : 이연경 인천시 부평구 길주남로10번길 21, 110-1602 (래미안부평)
최혜숙 서초구 현로8길 10-12, 107-603 (신원동,엠코타운)

기술 : 김순배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524-1202 (주공5단지A)
업무 : 고준호 서초구 바우피로길 91, 108-907 (양재동,우성A)
김종관 010-9943-2619
신승훈 종로구 경희궁길 57, 106-602 (사직동,광화문푸름스페이스본)
이원형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 17, 101-1305 (선암동,해광상그릴라)
관리 : 경진근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통로골길57번길 56
김병문 010-3212-7465
김성한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21, 103-1403 (죽전동,아이파크2차)
김연두 강남구 논현로57길 43 성덕빌라 201호 (도곡동)
김영만 010-2080-5142
박한성 은평구 증산로 333, 101-502 (증산동,증산월드빌)
이영환 관악구 행운10길 21, 102-501 (관악파크푸르지오A)
이중구 영등포구 선유서로 6, 101-1005 (문래동,현대3차A)
대구 : 김광안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7, 102-405 (우방사랑마을A)

※ 휴대폰 번호 변경 알려주세요

011이나 016, 017, 018, 019번으로 시작하는 휴대폰을 쓰시다가 최근에 010으로 바꾸신 회원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10번으로 바뀐 회원님들의 연락이 없어서 가끔 사무처 업무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010번으로 바뀌는 즉시 연락을 주시면 경조사(특히 부음)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회원님들께서도 연락을 받지 못해 결례를 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 원 동 정



박선영(보도)

(사)물망초 이사장으로서 탈북청 소년 구명활동에 대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3월20일(금) 유관순상 위원회가 시상하는 '제14회 유관순상'을 수상했다.



차인태(ANN)

민주평통 이북5도지역회의 부의장으로, 4월30일(목) 강명도 (전 북한인민무력부 정치보위대학) 교수를 초청해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김영철(편제)

지난 3월19일 개최된 강원민방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에 재선임되었다. 2011년 3월에 취임한 김 회장은 이번이 세 번째 연임이며 현재 강원민방문화재단 이사장도 겸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부인과 함께 안 나푸르나 등반을 다녀오기도 했다.



송세원(업무)

2월24일부터 3월6일까지 강남 시니어플라자 아트 갤러리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는 '인생1'을 비롯해서 소나 무만을 주제로 한 작품 22점을 전시했다.



정철영(보도)

최근 서울 양천구청장으로 부터 문화-예술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최세훈(보도)

4월초 같이 근무하던 이우호(보도),최우철(편제) 사우와 함께 'Life & Story' 라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회사를 설립했다. 개인 영상자서전을 전문으로 제작할 예정이며 케이블 TV등의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경환(기술)

연초에 방송장비 수입 대리점인 '(주)에이브넷' 이사로 취임하고 최신 UHD TV와 IP 전송기술에 관련된 전문 방송장비 공급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배대운(보도)

이번 학기부터 강원대학교 신방과의 초빙교수로서 방송론을 강의한다.



문비회(회장 조한진)

3월15일 (일) 20명의 회원이 사당동 참배나무골에 모여 고회를 맞는 두 회원의 축하연을 가졌다.



문우회(회장 장기태)

3월28일 (토) 25명의 회원이 흥제동 대박감자탕에서 모임을 갖고 김종국 회원을 새 총무로 뽑았다.



김현철(편제)

한국아카데미소년소녀합창단장. 5월14일부터 19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제15회 후카야국제어린이예술회에 특별 초청을 받아 한국동요와 민요, 일본동요들을 공연하고 돌아왔다.



신낙균(편제)

사우회이사. 둘째딸 신선영이 4월초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음악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 예고 졸업후 1997년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둘째딸은 바이올린을 전공하며 그동안 오벌린시카고-노스웨스턴대학 등에서 수학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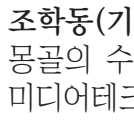
박근학(관리)

5월11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비상임 감사에 임명돼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새로 출범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부산-광주-강원-대전-인천 등 5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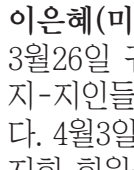
인사동클럽(회장 장명호)

4월24일 여의도 '스타차이나'에서 17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오찬모임을 가졌다. 이날 오찬은 이우용(춘천MBC사장), 김철진(원주MBC사장), 진현숙(MBC플레이비 사장) 등 세 명의 전직 라디오PD들이 선배들을 위해 합동으로 마련한 훈훈한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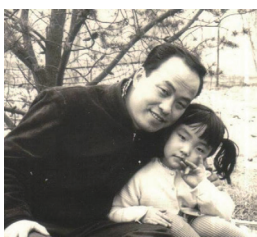
조학동(기술)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울란바토르 미디어테크놀로지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은혜(미주지회 총무)

3월26일 귀국해 부모님 산소에 성묘하고 친지-지인들을 만나본 뒤 4월6일 LA로 돌아갔다. 4월3일에는 사우회 사무실을 방문해 미주지회 회원들의 근황을 전해주고 사무처 직원들과 점심을 같이 했다.



故최세훈 아나운서의 출판기념회를 갖습니다.

최초의 시인아나운서였던 故최세훈씨의 유족(따님 최철미)은 부친의 30週年을 맞아 고인이 남긴 시작들과 글을 모아 책을 만들어 고인을 아는 분들에게 증정하고 추모의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故최세훈씨는 1964년 MBC아나운서 실장을 지냈고 전주, 대전, 마산 MBC에서 상무로 근무하다가 1984년(51세)에 작고했습니다. 6월21일 (일) 2시에 충청로역 8번출구 풍산빌딩 지하 '써브웨이' (02-393-8609)에서 고인을 기억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우회 우편함

“나는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네”

고무송(편제)



존경하옵는 송재(松齋) 서규석 고문님,

그 동안도 안녕하십니까? 사우회보에 게재된 <원로를 만나다> 인터뷰 반갑게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신 모습이어서 고맙습니다.

서 고문님께서 편집장과 나는 대답은 비록 짧았습니다만 긴 여운으로 가슴을 적십니다. 문화방송 역사의 생생한 증언일 뿐 아니라 질곡(桎梏)의 현대사를 꿰뚫는 촌철살인(村鐵殺人)의 기개(氣概)가 말씀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영원한 청년’ 서규석 고문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편집장의 인사말 속에 감히 저의 인사도 곁들입니다. 황송하옵게도 인터뷰 가운데 제 이름까지 거명하시며 라디오PD 2기 생애 대해 말씀해 주셔서 그때 그 시절 젊은 날의 정경을 되새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음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라디오PD2기생 열 사람을 한꺼번에 뽑아서 맹훈련을 시켰어요. 그 중에 고무송씨 같은 분은 신문사 기사를 하다가 온 사람인데, 인쇄매체에서 온 사람은 방송에 대해서 뭔가 허허로움을 느낄 것 같더라구. 그래서 라디오 매체는 이런 메리트도 있다는 뜻으로 롱펠로우의 시 ‘화살과 노래’를 일부러 들려줬는데, 나중에 애길 들으니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롱펠로우의 ‘화살과 노래’는 라디오PD로 출발한 저희들에게 전범(典範)같은 것이었습니다. 불특정다중(不特定多衆)을 향해

전파를 발사하는 저희들의 작업은 마치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아 올리는 것과 ‘하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 것과 흡사한 행위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제작해서 전파에 띄우는 메시지가 청취자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할 길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 롱펠로우의 ‘화살과 노래’ 제3편은 그 한계를 초극(超克)할 수 있는 복음같은 것이었습니다.

송재(松齋) 서규석 고문님,

1980년대 초, 신군부 독재자에 의해 언론인 712명이 숙정(肅正)이라는 너울을 쓰고 추방됐던 ‘언론인강제해직사건’(言論人強制解職事件). 그 소용돌이 속에 MBC는 70여명을 퇴출, 단일 기관으로서 최다 희생제물을 바치는 치욕의 기록을 남겼거니와, 그 와중에 당시 제작부 차장직함을 가졌던 저 같은 잡목(雜木)이 감히 이환의 사장님을 비롯, 서규석 상무님, 김포천 국장님 등 거목(巨木) 속에 섞일 수 있었음은 영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옥(玉)은 불 속에서 빛난다” 했던가요. “역사는 기록으로 말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날들의 단상(斷想)을 몇 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자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밖에 달리 어찌 할 길이 없었습니다. 섭리(攝理)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에 이른 것입니다. 송재는 두문불출 집안에 은거, 독서로 세월을 낚고 있다 했습니다. 필자는 어느 날 그런 송재의 맥을 찾았습니다. 성경책을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역시 그는 도인(道人)의 경지에 이른 큰 어른의 품모였습니다. 고난의 여울목 한가운데서도 그는 흐트러짐 없이 고고

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보석은 진흙탕 속에서 더욱 빛난다 했던가요. 그는 참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방송 선배요, 인생의 달인이었습니다. 방송에 관한 책은 물론 역사와 철학 그리고 문학과 종교에 관한 책들이 그의 머리맡에 그득했습니다. 송재는 방송 선배로서 자신의 모습이 후배들에게 부끄럽다 자탄했습니다. 군부독재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자신의 모습이 후배들에게 초라하게 보일 것이 몹시도 안타깝다 했습니다. 어디가요! 누가 그러던가요! 아니, 아니, 아니지요! 그게 어찌 당신의 책임일까! 당신 역시 군부 독재자의 군화발에 무참히도 짓밟힌 자랑스러운 선배 방송인이요 언론인인 것을! (월간<창조문예> 2014년9월호 127-128면)

사랑하는 송재(松齋) 서규석 선배님,

오늘을 가리켜 사표부재시대(師表不在時代)라 했던가요. 본받을 만한 큰 어른을 찾기 어려운 시절이라는 말이겠습니다. 안톤 슈낙(Anton Schunack)이 이 땅을 찾아왔다 할진대 그는 우리들의 이러저러한 형편을 살펴보고는, 그가 써놓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속에 이 시대 대한민국 상황을 삽입하지 않겠는지요. 이토록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줄기 위로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함은 필자의 마음 속에 거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큰 스승을 모실 수 있음일진저. 낙락장송(落落長松) 크고도 튼실한 소나무 송재(松齋) 선배님, 그대의 너른 품속에 내 한 마리 작은 새 되어 고이 깃들어 쉼을 얻을 수 있나니 이 어찌 넘치는 행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절 그 이야기

나의 특종기(特種記)

신 형 창(보도)



1966년 9월24일 밤 8시 15분쯤 MBC라디오 연속극이 한창 청취자들의 귀를 모으고 있을 때 갑자기 연속극이 중단되고 “방금 들어온 긴급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밤 김두

한(金斗漢) 전 국회의원을 국회의장(議長) 모독 혐의로 서대문구치소에 구속·수감했습니다. 다음 정규 뉴스시간에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왔다. 이어서 연속극은 다시 계속되었다. 지금이야 TV드라마 중이라도 자막처리를 하면 되니까 드라마를 중단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50년 전, 라디오만 있던 시절에는 긴급뉴스가 있으면 드라마라도 중단하고 긴급뉴스를 전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고 MBC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긴급뉴스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랬다. 그날 밤, 나는 인사동 본사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중 마는 중 데스크에 야근할 것을 보고하고 서소문 검찰청사로 갔다. 당시는 한 신문사에서 조·석간을 같이 발행할 때라서 취재경쟁은 가히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특히 큰 사건이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검찰청 1층 기자실에 들러 전등을 켜고 으레 그렇듯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公安부 검사실에 들르려고 방을 나서는데 당시 서울지검 한옥신(韓沃申)차장검사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평소에는 기자 만나기를 회피하고 뭘 물어봐도 ‘모

른다’고만 하던 韓차장이 스스로 기자실에 나타난 것이다. 그가 날 보더니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나도 못지않게 놀랐지만 안 그런 척 시치미를 댔다. 그가 “아니, 지금 막 영장을 집행했는데 어떻게 알고 왔소?”라고 말했다. 나는 짐짓 “다 아는 수가 있죠” 그래서 차장님께 확인하려고 왔는데 잘 만났네요. 영장집행을 벌써 했다고요?”하며 아는 척을 했다. “그래, 이미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했어”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했더니 그가 솔직하게 말해줬다. 韓차장검사는公安담당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주로 다루는 무서운(?) 검사로, 그 공로가 인정되어 나중에 경찰총수인 내무부 치안국장으로 영전됐다. 아무튼, 사건이 나면 방송기자들은 녹음을 해야 하고 신문기자들은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검찰이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이다. 그 만큼 김두한 의원의 ‘오물투척사건’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국무위원들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도 감담을 서늘케 한 前代未聞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966년 9월22일, 한국비료 밀수 사건을 규탄하던 韓獨黨 소속 김두한의원이 전날 밤 파고다공원 공중변소에서 퍼올린 오물을 국무위원석에 뿌려 정일권 총리,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 민복기 법무장관, 박충훈 상공부장관 등의 신체 일부와 의복에 오물이 튀어 國會議場이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에 구린내가 진동했던 사건이었다. 공화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원을 제명하려 했지만 그런 기미를 알고 김 의원이 직

전에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재석 155명 중 111명, 쯤 18명, 기권 22명, 무효 4명으로 사직원이 수리되어 당시 49세의 혈기왕성한 김두한은 前職 의원이 되었고 영장이 발부된 것이었다. 한국비료밀수사건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대형 사건이었으나 이병철회장이 검찰에 출두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기로 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기미를 보이자 김두한 의원이 오물사건을 일으켜 각성을 촉구했던 것이다. MBC의 특종 기사가 나가자 신문과 다른 방송에서는 난리가 났다. 더러는 나를 찾기도 하고 더러는 韓 차장과 수사검사를 찾기도 하고 사진기자를 대동하고 서울구치소로 가서 확인을 하는 등 야단법석이 났다. 나는 그 특종 덕에 10월 초 조증출사장으로 부터 특종상과 금일봉을 받아 사회부 회식비에 보탬다. 돌아보면 내 특종은 부지런함과 운(運)이 함께 한 것이었지만 MBC가 민간방송으로 탄생한지 5년 여 되는 시점에서 언론사 최초로 전국에 울려 퍼진 특종 뉴스는 MBC 기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희열이 넘치는 쾌거였다.

세월이 흘러 50년, 하늘을 찌를 듯 기세등등하던 김두한의원의 딸 김을동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회의원이 되고, 그의 외손자 송일국이 세쌍둥이 ‘대한’·‘민국’·‘만세’와 함께 TV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문득 특종을 낚던 그 시절이 못 견디게 그림고 천상천하에 당당하던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두한’이 새삼 보고 싶어진다.

기획시리즈

『元老를 만나다』

사우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元老를 만나다〉를 기획합니다.

편의상 분야별로 나누어 MBC와의 인연, 기억하고 있는 'MBC의 歷史'의 한 토막 등을 듣습니다. 세 번째 만난 분은 任宅根고문입니다. 당시 '아나운서의 대명사'로 명성을 떨치던 任고문님은 MBC에 오셔서 방송경영에 더 몰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나운서 얘기 보다는 임원으로서의 추억이 더 많았습니다.



-MBC와는 언제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는지요.

내가 KBS 아나운서 실장을 하고 있던 1964년 3월에 이수홍 당시 MBC상무가 반도호텔 커피숍에서 좀 보자고 해서 만났더니 'MBC로 오지 않겠냐'고 제의하는 거예요. 당시 MBC는 전무, 상무를 비롯해서 많은 방송 인력들이 새로 생긴 TBC로 옮겨가는 바람에 마치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쓸쓸한 분위기였지요. 의외의 제안이라 참엔 '무슨 말씀이냐'고 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했었어요.

-13년이라는 짧은 시간은 KBS생활, 특히 아나운서 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던 입장에서 자리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더구나 당시만 해도 앞길이 불안한 MBC 아니었나요?

맞아요. 고민을 많이 했죠. 거취문제를 놓고 부모님, 형제자매들과도 의논해봤지만 속 시원한 답이 안 나왔어요.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밤잠을 설치면서 '옮기느냐 마느냐' 생각을 거듭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무는 '왜 답이 없느냐'고 독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기겠다고 최종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MBC의 제안 때문인데, 내게 '방송부장'을 맡기겠다는 거였어요. 당시 '방송부장'이라면 보도, 편성, 제작, 기술 등 방송 전 분야를 총괄하는 자리라서 아나운서만 하던 나로서는 새로운 일을 맡아 역량을 발휘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긴 거죠. 두 번째는 KBS 아나운서 실장을 한 3년 했으니까 이제 후배들에게 넘겨줘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 당시 나는 '별정직 방송관'이라는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이것도 그만 탈피하고 싶었고,,그런 이유였죠.

-MBC로 오셔서 처음엔 정신이 없으셨겠네요.

인사동 동일가구 4층에 있는 MBC에 첫 출근을 했는데 입구가 사람 하나 겨우 들어 갈 정도로 비좁고 계단도 너무 가팔라서 위험했어요. 솔직히 말해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아, 잘못 왔구나'라는 후회가 머리를 스쳤지. 그렇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 어떤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출근해서 처음 한 일이 직원들 공백을 메우는 일이었는데, 우선 아나운서 실장으로 KBS의 최세훈씨를 스카웃하고 강영숙, 임국희, 홍종선, 오남열씨 등을 영입했어요. 기자들은 이낙용, 이만우, 김기주, 송석두씨 등을 영입하고. 그 때까지 내가 몸담고 있던 KBS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려니까 마치 친정집에서 살릴 뻔하는 딸의 심정이랄까(웃음) 그런 기분이라구.

-일 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였습니까?

무엇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했어요. 겨울에는 연탄난로를 피워놓고 가스를 마시며 일했고 여

름엔 냉방이 안되니까 밀폐된 방송실에 커다란 얼음덩어리를 갖다놓고 방송을 하고 말이지. 특히 경영상태가 아주 어려워서 직원들 봉급을 제날짜에 못주는 일도 있었어요. 월급날이 가까워오면 중역들이 사채를 얻어 살림을 꾸렸을 정도니까.



〈인터뷰 중〉

-경영상태는 언제 좀 좋아졌나요.

60년대 후반에 들어 경제성장 정책이 실시되고 내수경기가 활성화 되니까 민간 상업방송도 그 기운을 타고 호경기를 맞게 됐는데, 당시 일동제약 '아로나민'과 동아제약 '박카스' 광고가 크게 히트를 해준 덕에 MBC가 부채도 청산하고 흑자경영을 할 수 있었어요. 인사동 셋방살이 시절과 오늘날의 MBC를 생각해보면 정말 격세지감이란 말이 실감난다니가.

-당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셨나요.

뉴스와 스포츠 중계방송은 물론 다 했고 그밖에 공개 버라이어티 쇼 '오색의 화원', '한국의 50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억나요. 특히 66년 6월25일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되는 세계 타이틀매치 김기수선수 도전 중계방송은 100% 가까운 청취율을 올려서 MBC가 스포츠 중계의 强者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고요. 또 하나, 65년 1월에 당시 새로 지은 반도·조선 아케이드 2층에 위성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임국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공개방송을 진행했는데 첫날 박정희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나타나는 바람에 당황했지만 내가 즉석 인터뷰를 해서 한동안 화제가 됐었지.

-TV방송 개국 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처음 65년 4월에 TV국 개설 허가 신청서를 체신부에 냈었는데 채널이 없다고 반려됐어요. 얼마 후 다시 진정서를 내고 다방면으로 정부와 접촉한 결과 가허가(假許可)가 나오긴 했는데 조건이 아주 까다로웠어요. 일 년 내에 사육을 준공해야 하고, 학교방송 50%, 일반 사회교육방송 25%, 어린이 교육방송 25%를 방송하되 광고방송은 하지 못한다는 조건이니까 아예 상업방송은 하지 말라는 거지.

-아예 교육방송을 할테면 해라는 식이군요. 개국 자금 마련에도 애를 먹으셨다죠.

그렇지. TV를 개국하려면 우선 기자재 도입만 해도 엄청난데 그 돈이 없었어요. 그 때 나는 상무이사 시절이었는데 임원들이 연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개국자금을 마련하나 고민한 끝

에 때마침 우리나라에 관광 붐이 일기 시작하던 때라 새로 지을 TV방송국 옆에 관광호텔을 짓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관광진흥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를 받았고 호텔 자재와 방송 기자재를 같이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영국의 PYE사와 외자도입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때 도입된 외자 총액은 서울과 부산의 방송 기자재가 약 3백만불, 녹화 기자재가 약 60만불, 호텔 건축 자재가 180만불, 그 밖에 대형 TV수상기 3천대 도입비 6천만불 등이었다-편집자)

-애당초 교육방송으로 假허가를 얻었는데 어떻게 상업방송으로 성장했는지요.

다행스럽게도 당시 사회 분위기가 상업방송을 원하게 되는 문화적 욕구랄까 그런 것이 분출할 때였고, 또 우리의 기업 이윤이 5.16장학금을 통해 인재 발굴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TV방송을 통해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거듭된 진정이 정부 당국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교육방송 비율을 50%만 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거지. 결국 처음 신청서를 낸 지 4년 만인 1969년 8월 8일에 감격적인 개국 행사를 갖게 되었어요.



〈임택근 모닝쇼〉

-TV가 개국하면서 '임택근 모닝쇼'를 시작하셨는데 MC의 이름을 타이틀로 쓰게 된 첫 번째 케이스 아닌가요?

그렇죠. '임택근모닝쇼'는 69년 개국과 함께 시작해서 71년 2월까지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했는데 추운 겨울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6시 좀 지나 방송국에 도착해서 연출, 기술 스태프들과 협의하고 출연자와 사전 교감을 갖는 등 고생도 많았지만 보람도 많았던 프로그램이었죠. 이 중, 편일평, 육창웅, 이창식 PD 등 쟁쟁한 사람들과 매일 아이টে을 연구하고 생방송이 끝나면 티타임을 갖고 기탄없는 평가를 나누는 등 정말 애정을 많이 쏟은 방송이었어요. 처음 40분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한 시간으로 늘어났을 정도로 시청률도 좋았구요.

-애환이 많으셨겠지만 특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당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관심사에 관해 생생한 소식을 전하고 찬반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방송했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한두 개가 아닌데...여름철에 수재가 나면 제일 먼저 수재민돕기 생방송을 시작해서 큰 호응을 얻었구요. 1970년 2월에 KAL기 납북사건이 있었을 때는 즉각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국민들의 단합을 선도했어요. 한번은 정인섭 박사와 이종린씨 간에 '음주 찬반토론'을 벌였는데 열띤 토



〈김기수 선수 인터뷰〉

론 끝에 화가 난 정 박사가 ‘이런 술주정꾼하고는 같이 얘기를 못하겠다’고 생방송 중에 자리를 차고 나가는 바람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허허. 어느 겨울인데 새벽 5시에 일어나 불광동 집을 나서니까 밤새 온 눈이 얼어붙어 온통 빙판길이라 차가 엉금엉금 기다보니 방송시간 30분전인데도 아직 영천고개야. 할 수없이 차에서 내려 빙판길을 달리기 시작했는데 뛰다가 넘어지면 일어나 또 뛰고, 체면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숨이 턱에 닿게 달려서 방송국에 도착하니 이미 방송이 시작된지 몇 분이 지났어요. 얼른 복장을 갖추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 가서 앉으니까 곧 바로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는데 순간 “여러분”하고 입은 뻗었는데 숨이 차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 첫 번째 코너가 끝나고 나서야 간신히 오다가 빙판길에 넘어진 얘기를 사실대로 전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했어요. 1년 반 동안 432회를 방송했는데 하루하루가 긴장 속이었지 뭐.

-1970년 당시 가장 큰 사건이라면 역시 시민회관 화재(火災)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MBC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던 72년 12월에 개국 11주년 기념행사가 시민회관(현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게 됐어요.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없는 관람석과 화려한 무대 장식으로 흥겨운 개국파티가 벌어졌는데, ‘10대 가수 시상식’ 순서가 돼서 열 명의 가수에게 내가 먼저 시상을 하고 마지막 ‘가수왕’에게는 이환의 사장께서 시상을 했어요. 시상을 마치고 무대 뒤에 서 있는데 어느 순간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싶더니 무대 천정 조명등에서 ‘꽈’하는 폭발음이 들리고 연기가 치솟으면서 삼시간에 불길이 무대장치와 커튼을 집어 삼키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허둥지둥 출구 쪽으로 떠밀려 가는데 복도 위까지 검은 연기가 차올라 숨이 막히는 거야. 내가 큰소리로 “뛰지 마세요. 질서를 지켜주세요”하고 외쳤지만 소용없지 뭐. 사람들 틈에 밀려 간신히 밖으로 나와 보니 불길은 벌써 2층까지 번졌더라고요. 축제 현장이 삼시간에 생지옥으로 바뀐거지. 이날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가끔 그 자리를 지나갈 때면 당시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껴요.(이날 사망 52명, 부상 76명, 재산피해 2억 5천만원, TV모니터 10대, 카메라 3대, 중계장비 일체가 전소됐으며 미술 소품 책임자 이진식씨가 중실화 혐의로 구속됐다-편집자)

-이날 희생자 중에는 MBC 가족도 있었죠?

물론이죠. 당시 총무국장이던 김동윤씨 가족 4명이 변을 당했고 우윤근상무는 창문에서 뛰어 내리다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었죠. 장례식날 김국장이 네 개의 관을 붙들고 오열하던 모습에 전 직원들이 같이 울었는데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이네요. 애꿎게 구속을 당했던 이진식씨

는 나중에 무죄로 석방되었구요.

-MBC가 ‘여의도 시대’를 시작하게 된 것은 고문님께서 전무로 계실 때였죠?

그렇죠. MBC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다 보니까 정동사옥이 좁아졌어요. 또 당시 일류 호텔이 잇따라 건설되면서 문화관광호텔이 3류로 전락하는 바람에 그걸 자진 폐업하고 정동 사옥 전체를 방송시설로 사용하게 됐는데, 그래도 TV 전용 대형 스튜디오라든지 뉴스 스튜디오 등이 부족해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고 넓은 신축용 대지를 물색한 게 여의도예요. 76년 11월인데 당시에는 아직 아파트 붐이 일어나기 전이라서 평당 7만원이라는 비교적 싼값에 일만평을 샀어요. 그러나 79년 9월에 기공식을 가졌을 때는 5천평 밖에 안됐어요.

-왜 5천평 밖에 안됐죠?

그게, 당시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여러 사람들, 특히 정부쪽에 있는 사람들이 MBC가 뭘 그렇게 일만평이나 크게 짓느냐 하는 식으로 말들이 많으니까 할 수없이 5천평을 팔았는데 아유, 난 그거 팔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소용없더라고요. 보세요. 결국은 여의도가 좁아서 일산으로 또 상암동으로 옮기잖아요?



〈라디오 방송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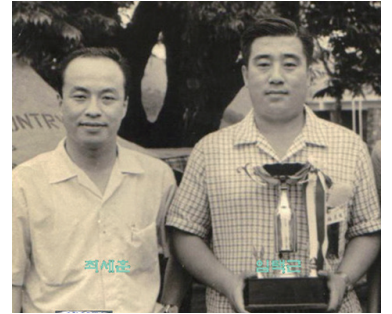
-1980년은 회사로서나 고문님 개인으로서나 아주 불행했던 시절이었죠?

그래요. 10.26이 나고 79년 말인데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문화·경향에서 서동구편집장, 노성대부국장, 오효진기자 등 7명을 인사조치하라는 중앙정보부의 명령이 내려왔어요. 이환의 사장과 나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도저히 이들을 버릴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리고 보직만 바꿔주는 것으로 인사조치를 끝냈는데 이게 화근이 돼서 80년 5월18일에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도를 핑계로 이 사람들을 몽땅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켰어요. 사실은 80년 2월 주총에서 이환의 사장과 전무이사였던 나는 유임이 됐었지만 일이 이렇게 되니까 6월에 최석채 회장과 이환의 사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어요. 나는 본의 아니게 사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석달 뒤에 전두환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른바 언론통폐합의 소용돌이가 몰아친 거요.

-이환의 사장이 물러나고 이진희씨가 사장으로 오면서 회사에 변화가 많았었죠?

이환의 사장이 그렇게 떠난 뒤에 마치 빈집을 지키는 심정으로 나날을 보냈는데 하루는 5,16 장학회의 조태호 이사장이 이력서 한 장을 주면서 ‘이 사람을 빠른 시일 내에 사장으로 선임하라’는 거야. 이력서를 보니 당시 서울신문 주필로 있던 이진희씨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80년 7월6일 임시 주총을 열고 조태호 이사장, 미원그룹의 임철수 부회장, 나 셋이서 만장일치로 이진희씨를 사장으로 선임했죠. 다음 날 문화체육

관에서 사장 취임식을 가졌는데, 임원들과도 별 말이 없이 악수 한번으로 끝난 싱거운 상견례를 했어요.



〈최세훈과 임택근〉

-그래도 고문님은 수석전무이사니까 대화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취임식 다음 날부터 사장실 문이 굳게 닫히더니 중역회의나 간담회도 일체 없는 거야. 신문 담당 조용중 전무, 업무담당 박희양 전무를 비롯한 임원들만 모여서 사장실의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안되겠다 싶어서 다음 날 내가 사장실을 방문했는데 잠시 기다리라고 해놓고선 함흥차사야. 한참 후에 들어오라 해서 이 사장에게 가서 “취임식도 끝났으니 임원들과 상견례도 할 겸 중역회의를 소집하시는 게 어떻습니까”했더니 “중역회의는 필요 없어요”라고 딱 자르더라고요. 더 할 말도 없고 해서 사무실로 돌아와 다른 임원들에게 “중역회의도 필요없고 만나 볼 필요도 없다고 하니 우리가 다 같이 사표를 쓰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해서 일괄 사표를 써서 사장에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받아서 아무 말없이 서랍 속에 넣더라고요. 사표를 제출하고 사흘 후에 당시 총무국장인 김기주씨가 와서 아주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국회 사무처장을 했던 권효섭씨가 지금 사장 방에 와있는데 그가 전무님 후임으로 오는 모양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 다음 날 사표가 수리됐다는 통보를 받고 짐을 싸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거라. 1951년 아나운서로 시작해서 30년간 오로지 방송 밖에 모르고 살아 온 내가 결국 이런 식으로 방송과 결별을 하는가 싶으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짐 정리를 대강 끝내고 7층 보도국부터 편성국, 제작국 등 각 방을 돌면서 작별인사를 하고 정문을 나서는데 그렇게 허탈하고 쓸쓸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만두고 나서도 70여명의 직원들이 해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MBC와의 인연이 끝났어요.

-나중에 방송문화진흥회의 감사도 하셨죠?

89년 2월인데 과분하게도 주위의 좋은 분들이 추천을 해줘서 감사를 맡게 되었어요.

비록 비상근이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MBC와 같이 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요.

〈후기〉

우리 시대의 레전드(Legend) 임택근 고문께서는 몇 년 전 사고를 당해 하반신을 다쳐서 휠체어에 앉아 거동을 하신다. 8순을 넘기셔서 옛날만큼의 후덕한 모습이 아닌 다소 야윈 얼굴이지만 인터뷰를 하는 동안만큼은 상기된 표정이셨다. 방송 얘기가 깊이있게 진행될수록 옛날을 추억하는 눈빛은 더욱 형형(熒熒)해지고 80년대를 얘기할 때는 깊은 한숨을 쉬기도 하셨다. 중요한 얘기는 대부분 기억하고 계시는 걸로 봐서 건강은 크게 염려할 정도가 아닌 듯했다. 아무쪼록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담·정리 : 편집장



이젠 의정부시 블로그 기자입니다

유 효 근(관리)



의정부시 블로그 '기자' 1기 유효근입니다. '기자'라고 하면 좀 쑥스럽고 마치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것 같아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사우회보에서 원고 청탁이 왔을 때 많이 당황했습니다. 소설은 조금 끄적일 수 있지만 수필은 약한데.. 그래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써볼까 합니다.

저의 일상에서 첫 번째 변화는 작가로서 제 이름을 올린 일입니다.

제가 쓰는 소설은 장르소설에 속하며 로맨스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MBC에 다닐 때 딱 한번 영화 시나리오 공모에 응모했다가 떨어지자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접었는데 결혼하고 퇴사하고 아이 키우고 어찌어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글이란 걸 쓰게 됐습니다. 글쟁이가 아니라서 꾸미는 말이나 다양한 어휘구사력, 문장력이 부족함을 깨달았고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기억이 생생하고 뿌듯해야 할 종이책으로 발간된 소설은 출판사가 도망가는 바람에 계약금의 반 정도 밖에 못 받았지만 닉네임 '나다'로 나온 첫 번째 책이라서 떼먹힌 돈도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만큼 가슴 한쪽이 빠근했습니다. (지금은 때인 돈 생각이 더 많이 나지만 ㅎㅎ) 용기를 얻은 나는 그 후에 다른 출판사와 계약을 했고 두 번째 종이책이 나올 때부터 닉네임 보다는 본명으로 창작활동을 계속했으며 세 번째부터는 인터넷 연재로 바뀌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각 통신사와 바로북 사이트에 총 6권의 소설을 올렸고 지금도 창작활동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의정부시 블로그 기자가 된 일입니다.

사회적 변화와 스마트기기, 인터넷 활용이 늘어나면서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등의 이용이 활발해졌고 제가 사는 의정부시에서도 블로그를 생성하면서 기자단을 뽑았습니다.

2013년 봄에 의정부시 블로그 기자단 1기로 뽑혔지만 처음부터 제 기사가 블로그에 올라간 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개설한 블로그나 카페는 사진 한 두 장에 설명도 간단하게 끄적거리면 됐는데 의정부시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기사를 써야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카메라는 자동 '디카' 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놓으면 화질이 문제였고, 사진이 괜찮다 싶으면 기사 내용이 부실해서 제 기사는 곧잘 까(?)였습니다. 기사가 까이고 나면 기분이 썩 안 좋지요. 까일 때마다 달리는 댓글을 보면서 고민도 했고 그 고민들이 더 나은 기사를 쓸 수 있게 만들었지만 타인의 시선을 끝만한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꿈틀거리는 제게 시청 직원이 블로그 꾸미는 방법을 가르쳐주었고 제 기사도 의정부시 블로그에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건 카메라이고 찍을수록 점점 욕심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기사거리는 지역의 소식이나, 생활정보, 문화행사 등이어서 찾는 것이 어렵진 않으며

또한 시에서 취재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서 대출과 반납하는 법, 무료급식 행사, 직거래장터, 의정부 예술의 전당

공연, 김장 나눔 행사, 노인복지관 행사, 무료 독감주사 등이 지금까지 제가 쓴 기사이고 의정부시의 행사와 축제 그리고 개인 및 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을 주로 포스팅 했습니다. 취재활동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행사가 참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큰 규모에 비해 참여 인원이 적은 행사를 취재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요즘은 봉사활동으로 재능 나눔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 분들을 취재할 때는 저도 제 삶을 꾸려나가는데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의료원과 영아원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었는데 영아원 사정으로 지금은 경기의료원에서만 안내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활동을 하면서 '초상권 침해'이니 찍지 말라고 할 때와 '잘 나오게 해주세요' '기사 언제 나와요' 라고 할 때는 살짝 난감합니다. 초상권 침해이니 찍지 말라고 하면 안 찍으면 그만이지만 잘 나오게 해달라는 사람에겐 할 말이 없습니다. 2년 동안 딱 한명이 제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크게 나왔다고.

'기사 언제 나오냐'고 물으면 살짝 곤란해지는 게 모든 기사가 포스팅되는 건 아니고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확답보다는 누락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더 신경 써서 기사를 작성하게 되고 포스팅 시 상대방에게 문자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특이하거나 남다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마다 블로그 기자, 시니어 사진작가, VJ시민기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맞는 교육까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 SNS에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맥내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원주MBC와 함께하는

간현 원주레일파크·경기 의왕레일파크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로 163)

(2016년 4월 운행예정)



원주MBC가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원주MBC